

인 사 말

불의의 여객선 사고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더하게 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오심을 기리는 정성으로, 애꿎은 아이들이 어서 부모님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통해 다시 한 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한 ‘국내외 장애인·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 행사도, 지난 14년 동안 꾸준히 우리 사회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애인과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를 당한 분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과 희망도 함께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우리 인간들이 온갖 번뇌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대자유인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신데 있습니다. 그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은혜를 세상에 회향하고자, 우리는 간절하고 정성스런 마음으로 오늘 철야정진 기도에 임하는 것입니다. 정성스런 기도정진으로 장애와 난치병과 재난으로 세상의 따뜻한함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과보를 바라지 않고 보시를 실천하는 오늘의 공덕은,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무주상보시의 공덕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오늘 여러분은,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하나 된 마음으로 3천배를 함으로써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매년 이 뜻 깊은 행사에 동참하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산하시설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봉사의 현장에 함께 하고 있는 조계종자원봉사단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이번 행사에 동참하고 계신 조계사, 용주사, 직지사, 동화사, 통도사, 고운사, 선운사, 신륵사의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에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진도 여객선 사고의 안타까움을 함께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사고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 노고에도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건강과 안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8년 4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